

경제난에 1인당 신용카드 4.4장 '역대 최다'

체크카드 줄고 신용카드 늘어...코로나 속 생활고 반영 해고·퇴직 속 자영업 창업에 카드 가맹점 300만개 돌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만큼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보유량은 줄어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신용카드를 요긴하게 사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3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

난해 말 국내 신용카드 수는 1억2천417만장으로 전년의 1억1천769만장보다 648만장이 늘면서 역대 최다 보유량을 기록했다.

국내 신용카드 수는 2011년 1억2천214만장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9천222만장으로 1억장이 무너졌다. 이후 2018년 1억506만장, 2019년 1억1천98만장, 2020년 1억1천373만장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구직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를 가리키는 경제활동인구(2천801만명)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4.4장으로 전년의 4.2장에 비해 0.2장 증가했다.

이는 2012년에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 4.5장을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2011년 4.8장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13년 3.9장, 2015년 3.4장, 2018년 3.8장, 2019년 3.9장으로 4장을 밑돌다가 2020년 4.1장으로 늘었다.

반면 미성년자에게도 발급되는 체크카드 보유량은 지난해 말 1억509만

장으로 전년의 1억609만장보다 100만 장 줄었다.

체크카드 보유량은 2018년 1억1천43만장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억1천70만장, 2020년 1억1천2만장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한 카드회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통장에 당장 돈이 있지 않아도 쓸 수 있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다양한 대출 서비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가맹점 수는 지난해 310만개로 역대 처음으로 300만개를 넘

어서다.

2004년 카드 가맹점이 150만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18년 만에 두배로 늘어난 셈이다.

카드 가맹점은 2016년 250만개를 기록한 뒤 2017년 257만개, 2018년 269만개, 2019년 281만개, 2020년 290만개, 2021년 299만개로 매년 늘어왔다.

다른 카드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기업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명예퇴직이나 해고 등이 늘어 취업 전선에 나온 실직자들이 커피숍 등 창업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하면서 카드 가맹점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투데이경제



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도사회서비스원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13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남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남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및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성희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신규직무개발로 장애인 채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호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장은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서원 기자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광주본부 초도순시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13일 광주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초도순시는 직원 격려와 광주지역 주요 현장 방문을 통한 입주기업 애로정척 및 지역본부 주요 사업 추진현황·산단단지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이사장은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산단 사업 현장과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주요 기업인 (주)DH글로벌을 방문했다. 이어 광주첨단경영자협의회와 광주광동경영자협의회 등 광주지역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광주첨단산단을 비롯한 광주지역 산업단지를 디지털·저탄소의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서원 기자

새마을금고 설립 출자금 기준 강화

특별·광역시 5억→20억...시행은 5년 뒤로 미뤄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총액 기준이 현재보다 몇 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을 변경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출자금 총액 요건을 특별시·광역시에는 '20억원 이상', 시에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다만 이는 2028년 7월 1일 이후 설립되는 지역금고로 한정했다. 시행 시기를 5년 미룬 것이다.

또한 과도기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는 출자금 기준을 특별시·광역시에는 '10억원 이상', 시는 '8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에는 '5억원 이상', 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애초 계획보다는 많이 후퇴했다.

지난 3월 예고된 개정령안에서는 설립기준이 특별시·광역시에는 '50억원 이상', 시는 '30억원 이상', 읍·면은 '10억원 이상'이었다.

/연합뉴스



미니수박 인기
혼자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만큼 크기와 중량이 작은 수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망고 수박과 애플수박 등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기업 부채비율 8년만에 최고

지난해 성장·수익·안정성 악화...차입금의존도 28% 달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1년 전보다 나빠졌다. 안정성도 약화해 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202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3만129개(제조업 1만2천199개·비제조업 1만7천900개)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 비교해 16.9% 증

가했다. 증가 폭은 2021년(17.7%)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제조업 전체 매출 증가율은 2021년 19.7%에서 지난해 16.4%로 낮아졌다.

세부 업종별로는 수출 단가 상승과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석유정제·코크스(48.4%→66.9%) 매출액이 크게 늘었으며, 자동차(11.8%→15.2%)도 수출 증가 영향으로 매출 증가율이 높아졌다.

반면 화학물질·제품(32.0%→16.9%), 1차금속(36.5%→14.0%), 전자·영상·통신장비(20.8%→5.4%) 등은 매출 증가율 둔화 폭이 컸다.

비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전기가스업(13.2%→46.8%) 등을 중심으로 전년 15.3%에서 17.5%로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18.6%→18.1%), 중소기업(14.5%→12.3%) 모두 매출액 증가율이 낮아졌다.

연간 총자산증가율 역시 2021년 10.8%에서 지난해 7.8%로 낮아졌다.

이는 매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제조업·대기업은 매출채권, 비제조업·중소기업은 현금성 자산 증가율이 낮아진 영향이다.

수익성 지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뚜렷하게 나빠졌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률(5.3%)과 세전 순이익률(5.2%) 모두 지난 2021년(6.8%와 7.6%)보다 각각 1.5%p, 2.4%p 떨어졌다.

업종별로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7.8%에서 지난해 6.3%로 낮아졌

다. 제품 가격 하락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업(13.9%→10.2%) 영업이익률이 낮아졌고, 화학물질·제품(10.0%→5.3%) 업종도 부진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1년 전보다 약화했다. 지난해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은 102.4%로 지난 2021년(101.0%)보다 1.4%p 높아졌다. 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106.5%)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였다.

지난해 전체 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28.2%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27.6%)보다 0.6%p 높아지면서 역대 최고치인 2019년(28.3%)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h2 style="margin: 0;">상무지구 상가 (매매)</h2>	<h2 style="margin: 0;">장성토지 매매</h2>	<h2 style="margin: 0;">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2>		
<p>▶ 중심 상업지구</p> <p>(6층, 7층) = 140평</p> <p>시세 → 14억</p> <p>급매 6억8천</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p>▶ 장성호(댐) - 5분</p> <p>광주 - 20분</p> <p>토목공사 완료</p> <p>6m 도로접</p> <p>(100평, 150평, 200평 가능)</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천)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px; vertical-align: middle;">광주</td> <td> 광신구 연신동 (근린시설) ▶ 감평가 29억 → 최저가 20억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평가 50억 → 최저가 28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평가 31억 → 최저가 22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5천 광신구 수원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 → 최저가 2억2천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19억 </td> </tr> </table>			광주	광신구 연신동 (근린시설) ▶ 감평가 29억 → 최저가 20억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평가 50억 → 최저가 28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평가 31억 → 최저가 22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5천 광신구 수원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 → 최저가 2억2천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19억
광주	광신구 연신동 (근린시설) ▶ 감평가 29억 → 최저가 20억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 ▶ 감평가 50억 → 최저가 28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동구 불로동 (근린주택) ▶ 감평가 31억 → 최저가 22억 북구 일곡동 (근린주택)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5천 광신구 수원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 → 최저가 2억2천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 감평가 1억7천 → 최저가 1억2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19억			
<p>010-6670-9800</p>				

